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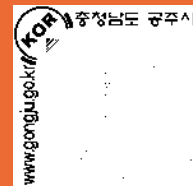
2023년 11월호
VOL.344

흥미진진 **공주**

공주의 '춘마곡 추갑사(春麻谷 秋甲寺)'라는 말이 암시해주듯 갑사의 가을 단풍은 더없이 아름답다.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통일신라 화엄종 십대사찰 중 하나로 '하늘과 땅과 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甲)간다'고 해 갑사가 됐다고 전해진다. 단풍이 물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갑사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자.

갑사 | 계룡면 갑사로 567-3

2023년 11월호
VOL. 344
흥미진진 **공주**



발행일 2023년 11월 1일 **발행인** 공주시장 **발행처**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제작·디자인 부운디자인 ☎ 042-255-6225

흥미진진 공주 통권 344호 공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층, 문맹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점자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구독 신청이나 취소, 주소 변경 및 지인 구독 추천에 대한 문의는 홍보미디어실(041-840-25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정 문의 ☎ 1899-0088 | 041-840-3800

● — 공 주, 다 음

가가대소 공주 ①	04
가가대소 공주 ②	08
공주에 살으리랏대!	10
역사가 답하다	12

☂ — 도 시, 돌 음

공주소식	20
의정소식	22
공주알림	26

📖 — 행 복, 틈 음

시민기자	29
공주 설화를 찾아서	30
문화살롱+동행의 기쁨	31
이달의 인물	32
따스한 사람들을 만나다	33
이웃이 소개하는 로컬맛집	34
독자참여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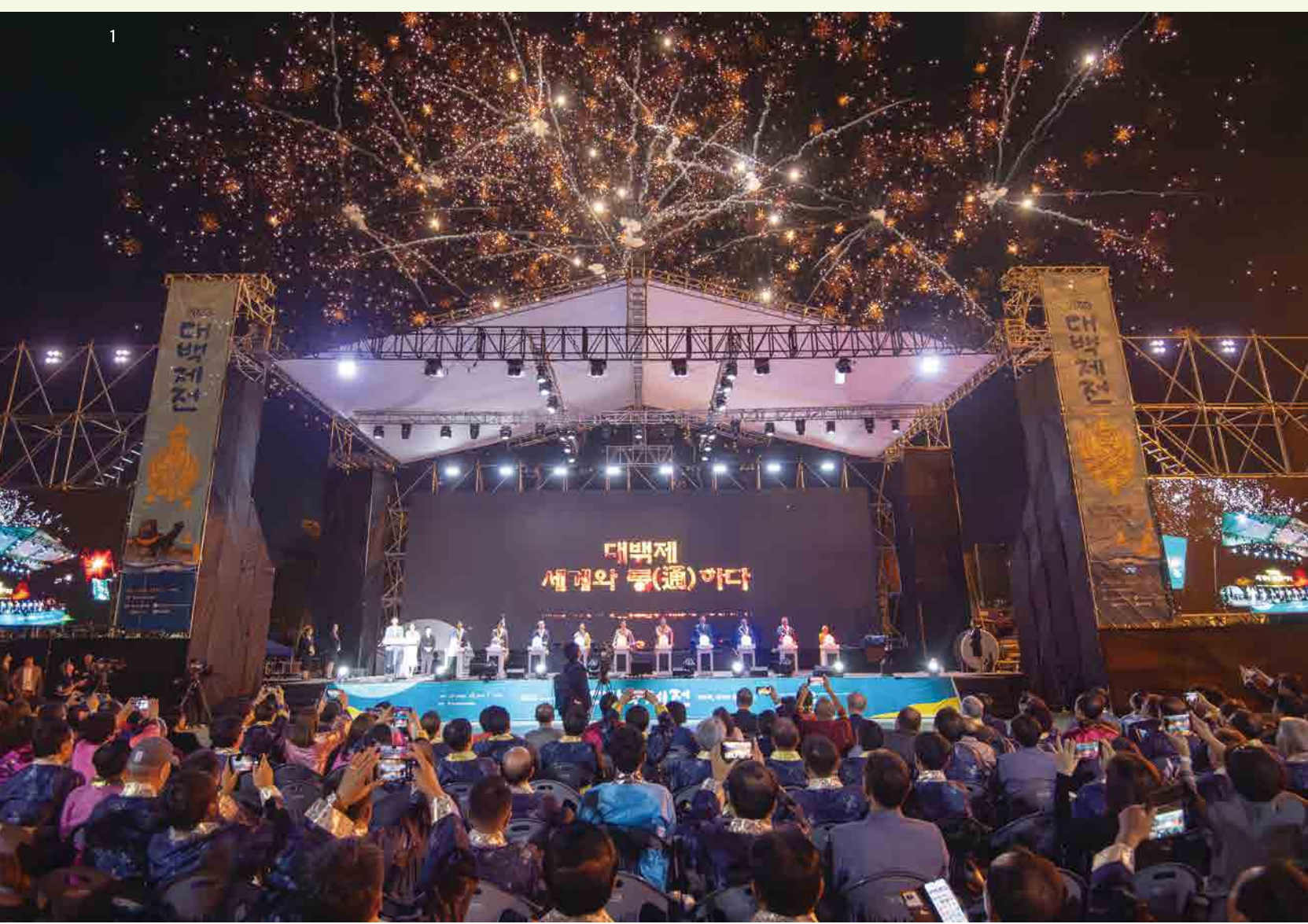
☘ — 사 람, 자 람

화양연화 원도심	14
농업이 미래다	16
기업이야기	18



화보로 다시 만나는 2023 대백제전

300여만명이 찾은 2023 대백제전이 막을 내렸다. 17일간 이어진 대백제전은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라는 주제로 과거 백제와 교류했던 해외 8개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백제문화에 대해 알리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무령왕의 장례를 대규모 행렬로 연출한 '무령왕의 길', 시민들이 참여한 '웅진성퍼레이드', 국내 이동형 수상 구조물과 워터스크린 등으로 연출한 '수상 멀티미디어쇼', 360°돔 천장의 화려한 '미디어아트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을의 낮과 밤을 풍성하게 만든 2023 대백제전을 사진으로 다시 즐겨보자.



- 1 2023 대백제전 개막을 선언하는 장면
- 2-3 시민이 직접 참여한 '웅진성 퍼레이드'
- 4 무령왕 일대기 창작 뮤지컬 '웅진판타지아 무령대왕'
- 5 백제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관'

● 공주, 다음 _ 가가대소 공주 ①



6



7

- 6-7 1500년 전 무령왕의 업적을 스토리로 연출한 미르섬 앞 금강 '웅진백제등불향연'
- 8 무령왕의 스토리를 특수효과를 활용해 연출한 '수상멀티미디어쇼'
- 9 무령왕 서거 1500주년 기념해 상례를 연출한 '무령왕의 길'



8



9

6

- 10-11 백제 역사의 이야기가 담긴 미르섬 '웅진백제별빛정원'
- 12 친환경 프로그램(퀴즈 맞추기)
- 13 활쏘기 체험
- 14 전통놀이 체험



10



11



12



13



14

대백제전을 빛낸 숨은 주역들 '축제의 꽃' 자원봉사자

대백제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축제를 더욱 빛나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는 관내 15개 봉사단체가 종합안내와 의료보건, 미아보호소, 물품보관소, 환경정화 등 총 13개 분야에서 총 6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휴일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렸다. 행사장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분주히 움직였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만나본다.

고마곰과 공주 포토존 운영

“고마곰과 공주와 함께 인생 사진 찍어주세요~”

축제를 즐기는 데 사진이 빠질 수 없죠? 대백제전에서 공주시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마곰과 공주 인형을 보며 아이처럼 웃음을 짓는 어르신들을 볼 때 너무 뿌듯했어요. 공주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도 건지고, 특별한 추억도 함께 얻어주세요!



교통 정리

“신속한 교통정리, 통행 확보!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합니다. 수신호에 따라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차량을 볼 때면 뿌듯합니다. 또한 교통질서를 잘 지켜준 운전자에게는 거수경례, 혹은 “좋은 하루 되세요!”라며 정겹게 답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분들마다 감사하다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다며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에요.

종합안내소 운영

“축제를 완벽하게 즐기고 싶다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종합안내소에서는 홍보 책자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일정을 안내해드리며 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많은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코로나 종식 이후로 진짜 축제가 열렸다는 게 더욱 실감나더라고요.



의료지원단 운영

“응급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건강지킴이”

관람객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부상을 입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의료진과 구급차량을 배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어요. 이밖에 상비약이나 마스크도 제공하고 있으니 몸이 조금 안좋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방문해주세요.



유모차 대여소 운영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 아이와 즐기기 좋은 축제를 만듭니다”

유아를 동반한 관람객들도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유모차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 귀여운 아기들을 보다 보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즐겁게 일하게 되는 거 같아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는 데 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축제인 만큼 청소년들이 흡연, 약물, 폭력 등 수많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부스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청소년 신분증 진위 여부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음주·흡연하는 청소년을 계도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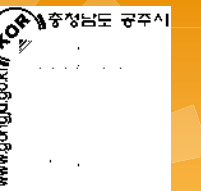


가족봉사단 참여자

“축제를 가장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봉사”

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축제 현장의 모습은 공주를 떠올리는 이미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도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행사장 곳곳을 돌며 각종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TV와 같은 미디어들에 친숙해져 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 모처럼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과 행복을 모두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공주시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이 알고싶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심볼과 마스코트는 단순한 캐릭터로 그치지 않고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고 있다. 이들은 타 도시와 차별화 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공주시를 대표하는 슬로건과 심볼, 마스코트에 대해 알아본다.



슬로건

| 흥미진진 공주

흥미로운 역사 + 아름다운 자연 + 즐거운 문화 + 희망찬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기분 좋은 감성과 새로운 영감을 전해주는 도시, 공주

흥(興)

흥미로운 역사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도시, 공주

미(美)

아름다운 자연

계룡산으로 둘러싸이고 금강이 품은 아름다운 땅,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특산물을 사계절 전해주는 도시, 공주

진(眞)

즐거운 문화

벚꽃축제와 석장리구석기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 백제 문화제, 공주군밤축제 등 사계절 내내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공주

진(進)

희망찬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는 도시, 공주

Corporate Identity

| 행복한 미래로 가는 문, 공주시



공주시의 CI는 '행복한 미래로 가는 문'이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열려있는(open-mind), 창조적인(creative), 공유하는(sharing) 세 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디자인됐으며 백제의 진취적인 왕인 무령왕 및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모티브로 공주시가 쌓아온 역사·문화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형태는 공주시 6개의 동과 10개의 읍·면을 16개의 조각으로 형상화했으며 백제의 품격을 나타내는 노란색과 갈색, 생동감과 활기를 주는 주황색, 진취적인 미래의 비전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적용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주시를 표현했다.

Brand Identity

| 찬란한 빛의 도시, 흥미진진 공주



공주시의 BI는 찬란한 백제 번영의 도시, 공주를 밝혀주는 빛을 형상화한 콘셉트로 공주시 16개 읍·면·동이 함께 어우러진 원형의 면 분할로 구성함으로써 공주시의 CI와 BI를 일관된 색조와 기법으로 표현했다. 흥미진진 공주의 슬로건과 비주얼의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이면서 활기 있는 공주시를 보여준다.

마스코트

| 공주를 대표하는 '고마곰'과 '공주'

백제의 도읍이자 역사문화도시 공주에는 곰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공주시 마스코트도 이 설화 속의 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탄생됐다. '고마곰'은 웅진 백제시대 문화 융성의 주역인 무령왕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수호자로서 공주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마스코트다. 무령왕의 환두대도와 금제관식을 모티브로 시각화했으며 공주시의 희망과 번영을 상징하는 소녀 '공주'는 공산성을 모티브로 개발됐다.



코너 속의 코너 | 고마곰과 공주 이야기

소나무 숲이 우거진 어느 마을에 소녀와 둘도 없는 친구인 작은 곰인형이 살았다. 어느 날 소녀는 무령왕의 전설이 전해져 오는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놀러갔다가 그만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해가 저물자 무서워진 소녀는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신비한 빛이 나타나 소녀의 곰인형에게로 번지는 것이다. 그리고 곰인형에게 '악귀를 쫓는 허리띠', '장엄한 위용의 환두대도', '전장을 누비던 망토', '찬란한 왕관' 등 무령왕의 정신이 깃든 신령한 의상들이 입혀지더니 환두대도를 환하게 비추며 여뎀을 물리쳐 주었다. 이어서 환두대도를 높이 들어 올리자 신비의 동물 진묘수가 나타나 소녀와 곰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곰은 자신이 쓰고 있던 왕관을 소녀에게 씌워주며 말했다. "넌 나의 진정한 공주야. 언제나 행복하도록 내가 늘 함께할게."

미디어로 만나보는 고마곰과 공주!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고마곰과 공주 이야기

고마곰과 공주와 함께 춤을

고마곰과 공주 인스타그램



공주하숙마을에 있는 고마곰과 공주



공주한옥마을에 있는 고마곰과 공주

백제 문화가 피워낸 연꽃 한 송이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국보 ⑨ 무령왕비 금제 관식

이한상
대전대학교 교수
(전)국립공주박물관 학예사

왕이 돌아가셨다. 백제 제25대 무령왕이 돌아가셨다. 523년 5월 7일의 일이다. 그리고 보면 2023년은 무령왕이 돌아가신 지 1,500주년이 되는 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국보 12건을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국보를 만나보는 감동을 느껴보자.

무령왕릉은 천오백 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현대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지금의 디자이너가 도안했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특히 무령왕비 금제 관식의 디자인은 요즘 날에도 인기가 있어 여러 곳에 활용된다. 무령왕 관식에 비해 단정하고 차분해 보인다는 평을 받는 왕비 관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발굴 41년 만에 제 모습 되찾다

왕비 관식은 왕 관식과 마찬가지로 망자의 머리 위치에서 2점이 겹쳐진 채 출토됐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왕비 관식은 수대경이라 불리는 청동거울 위에 놓여 있었고 주변에서 금귀걸이, 금제 모자를 씌운 곡옥, 오각형 금판, 사각형 금판 등이 함께 출토됐다고 한다. 귀걸이를 제외한 유물 가운데 상당수는 왕비의 머리 장식품이었을 것이다.

왕 관식은 전체가 순금이어서 보존상태가 좋았지만 왕비 관식은 보존상태가 상대적으로 나빴다. 무늬가 새겨진 몸체는 순금이었기에 온전한 모습을 유지했으나 아래쪽 솜베*는 청동이었기에 심하게 녹이 슬어 파손된 상태였다. 겨우 수습해 복원할 수 있었는데 1점은 솜베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렇게 무령왕비 관식은 솜베가 결실된 채 국보로 지정됐다. 그러던 중 2012년 국립공주박물관이 결실된 것으로 알려진 왕비 관식 솜베 하나를 찾아 공개했다. 오랫동안 박물관 수장고에 잘 보관돼 온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1971년 7월 9일 새벽, 철야 작업을 통해 왕릉 내 주요

유물을 수습했지만 바닥에는 말라죽은 나무뿌리, 유물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조사단은 서둘러 쓸어 담아 박물관으로 옮겼고 나무상자에 옮겨 담아 별도로 보관해온 것이다. 발굴 20주년이 지난 후 박물관 측은 상자 속 유기물과 유물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왕비 관식, 어떻게 쓰였을까

조사원들은 보고서를 쓰면서 관식이 상하로 겹쳐서 출토된 점에 주목하고 관식이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오라관의 앞과 뒤에 하나씩 부착됐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왕 관식 출토 모습을 보면 조사자의 주장이 조금은 어색해 보인다. 쌍을 이룬 2점이 겹쳐서 출토된 것은 맞지만 2점 모두 관식 표면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달개가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마주 보고 있었기에 발굴 모습이 실제 관에 부착된 모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래에는 관식이 관의 전후가 아닌 좌우에 부착됐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령왕과 무령왕비 관식 비교

그러나 왕비 관식은 그와 달랐을 것 같다. 고깔 모양 관의 경우 상투를 튼 성인 남성들에게 적합한 구조다. 왕비의 경우 왕에 비해 머리카락이 길었을 것이고 평소 큼직한 가체(加髻)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왕 관식의 착장 방식을 왕비 관식에도 적용하기는 어렵다.

왕비 관식에서 또 하나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솜베 형태 및 재질이다. 왕 관식은 관에 부착하기 위해 솜베가 구부러져 있고 그것에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솜베까지 순금으로 제작됐는데 이는 솜베가 외부로 드러나 있었음을 뜻한다. 그와 달리 왕비 관식은 솜베가 직선적이고 관에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았으며 솜베가 청동으로 제작됐다. 소유자 지위를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이상한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청동으로 만든 솜베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숨겨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다. 아마도 왕비 관식은 가체에 직접 꽂히거나 혹은 그 위에 얹히는 유기물 관에 끼워졌던 장식품일 수 있다.

왕비, 독실한 불교 신자였나

왕비 관식은 전체적으로 보면 꽃봉오리와 비슷하다. 가장자리에 삐죽삐죽 솟아오른 인동초 끝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배치됐고 중간에 연화대좌 위에 올려진 병에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 겹겹이 오므라져 있었을 꽃잎이 한 겹, 두 겹, 세 겹 차례로 열리면서 활짝 피어나는 순간을 묘사한 것 같다.

이와 유사한 도안은 중국 남조 무덤 속 전등에서 종종 보이곤 하는데 기본적 모티브는 사후 연꽃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불교의 연화화생과 관련이 있다. 백제에서 불교는 이미 한성기에 도입됐고 웅진기에는 왕실로 불교가 깊숙이 스며든 것 같다.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중국 남조 양나라 무제는 스스로 부처라고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한 인물이고, 무령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왕 역시 대통사를 짓고 인도 아쇼카왕처럼 전륜성왕이 되고 싶어 한 인물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무령왕비, 즉 성왕 어머니 '태비'는 불교를 신봉한 인물이었고 그러한 연유로 관식에 불교적 도안이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무령왕비 관식은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국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늘 거친 발굴만을 탓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장차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진전시켜 이 관식에 담긴 여러 수수께끼가 차례로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무령왕비 금제 관식 한 쌍

* 솜베 : 갈, 호미, 낫 따위에서,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뾰족한 부분.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교동이란 '향교가 있는 동네'를 뜻한다.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 향교가 있었기에 국내에서 교동이란 지명이 흔한 것도 그 이유다. 공주 교동은 공주향교를 비롯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동네다. 요즘 이곳에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교동의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한옥카페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80년의 세월을 품은 한옥을 향긋한 커피 향으로 새롭게 물들인 로컬커피 김민태(32) 대표를 만났다.

80년 한옥에서 즐기는 달콤한 알밤디저트



김민태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로컬커피 대표



밤을 활용한 크림브뤼레, 타르트



오랜 시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옥의 변신

2020년 문을 연 로컬커피는 교동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카페다. 4년 전 김민태 대표는 공주에서 사업을 구상 중이던 친구를 따라 교동을 방문했다. 사실 수원토박이인 김 대표에게 공주는 너무나 친숙한 지역이었다. 공주가 고향인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자주 놀러왔던 곳이었기 때문. 그러나 인적이 드물고 비교적 외곽에 위치한 교동을 올 기회가 없었고, 교동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지금의 로컬커피 한옥을 보게 됐다.

“처음 한옥을 보자마자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요즘 한옥을 소재로 한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한옥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로컬커피는 80년 된 전통 한옥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더욱 특별해요. 나무 기둥부터 서까래 등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탈리아-프랑스 요리를 전공한 로컬커피 김 대표는 호텔과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약 9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셰프다. 처음엔 전공인 요리를 살려 음식점을 하려 했으나 한옥의 크기나 구조를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고려했을 때 음식점보다 카페가 좋을 것 같았다. 이후 카페에서 근무하며 일을 배우고 다른 지역 유명한 한옥카페를 탐방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창업을 준비할 당시 카페는 유행에 민감한 업종인 만큼 빠르게 변화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행을 따라가는 아이템보다 카페만의 차별화된 아이টে으로 경쟁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타나는 오래된 한옥, 비밀스럽게 숨겨진 안식처와 같이 교동 로컬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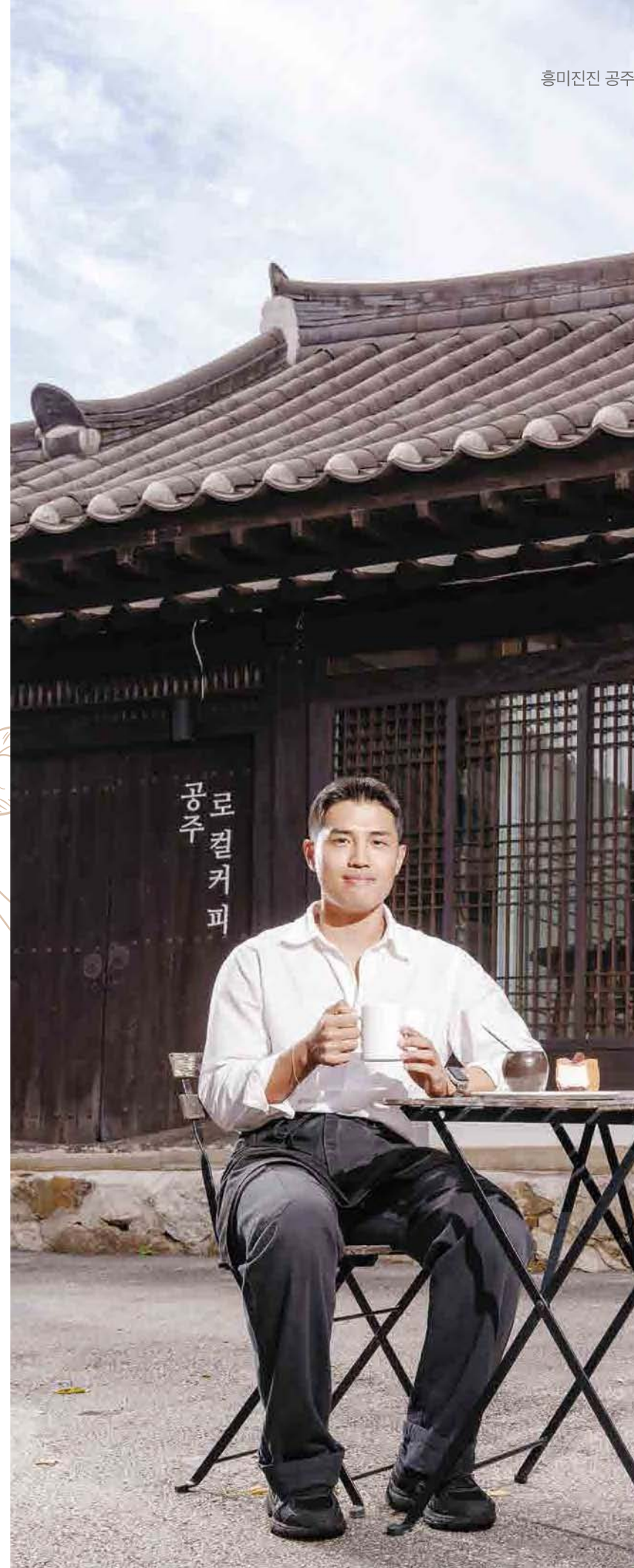
교동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로컬커피

로컬커피에서는 공주를 대표하는 알밤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그중 한국식 단지 안에 들어있는 알밤크림브뤼레는 로컬커피의 시그니처 메뉴다. 커스터드 크림 위에 설탕을 올리고 토치 등으로 그을려 단단한 설탕 막을 입혀 만드는 크림브뤼레는 프랑스에서 즐겨먹는 대표 후식메뉴. 김 대표는 어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크림브뤼레를 한국식 단지 그릇에 담아 누구나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로컬커피를 본격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카페를 운영한 지 3년차지만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았어요.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로컬커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로고와 브랜드 디자인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밤디저트들은 따로 포장이 되지 않아 손님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최근에는 포장이 가능하고 보관이 용이한 디저트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김 대표에게 전공을 살리지 못해 아쉽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 있는 요리를 카페에 접목시켜 색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 좋은 점이 많다고 말한다.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오직 한 테이블을 위한 음식을 요리해왔던 그는 디저트를 접시에 담을 때도 플레이팅에 공을 들인다. 초콜릿으로 그림을 그려주거나, 생일인 손님에게는 생일축하 글을 써주는 등 손님 한 분 한 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하는 것.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차이가 전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그의 한마디다.

“로컬커피가 단순한 카페가 아닌 교동에 더욱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공간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로컬커피 주변에는 한옥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로컬하우스, 맛있는 양식을 즐길 수 있는 로컬파스타가 있는데요. 현재 23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 한옥이라는 특색이 담긴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교동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이러한 로컬코스가 누구나 공주에 놀러 오면 꼭 데려와 보고 싶은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퇴직 10년차 매일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강종철
고당농장 대표

60세에 직장에서 은퇴해도 이후의 삶이 20년 이상 남아 있는 시대다.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더 빨리 은퇴를 하거나, 도심을 벗어나 자연에서 생활하며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은퇴와 함께 시작되는 ‘인생 2막’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준비하는 일은 필수과제가 됐다. 고당농장을 운영하는 강종철(70) 대표 또한 10년 전 이와 같은 고민을 했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답은 ‘귀농’이었다.



20년 만근을 목표로 시작한 제2의 직장

강종철 대표는 농사를 지은 지도 어느덧 10년차에 접어든 농부다. 지난 33년간 농협에서 근무했던 그는 정년퇴직이 가까워지자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이 많았다. 당시 가족들은 지금껏 성실하게 일해 온 강 대표에게 달콤한 휴식을 즐기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은퇴 후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기보다 농촌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었다.

“인생의 절반을 매일 출근하며 지내온 직장인이 퇴직 후 하루아침에 일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진다면 삶이 무의미하고 불행해질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80세를 목표로 20년간 다시 성실하게 일할 직장을 농촌에서 만들어 보자 결심했어요. 이후 정년퇴직을 앞둔 3년 전부터 사곡면에 땅을 사고 나무를 심으며 귀농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인생 2막의 새로운 직업으로 ‘농부’를 택했다. 퇴직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을 다니며 농업 관련 교육과 선도농가 벤치마킹 현장교육 등으로 영농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했다. 이밖에 오디연구회, 공주시 귀농귀촌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며 만난 교육생들과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떤 일을 시작해도 마찬가지로지만 농사에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작물이 최고의 품질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 식물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교육이 열린다고 하면 분야가 달라도 꼭 참석하고 있어요. 다양한 교육을 수강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교육생들과도 소중한 인연을 맺어 소통하다보니 점차 농사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노하우도 하나 둘 터득하게 됐죠.”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농사에 임하다

그는 봄에는 오디와 블루베리, 가을에는 꾸지뽕과 왕대추를 재배하고 있다. 귀농을 준비했을 당시 한창 웰빙 열풍이 불었던 터라 건강에 좋은 약용작물을 선택했다는 게 그의 한마디. 최근에는 가을철을 맞아 꾸지뽕 수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다.

“신선들이 선식으로 즐겨먹었다는 꾸지뽕은 열매, 잎, 줄기, 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건강식품이에요. 농가에서는 잘 익은 꾸지뽕 열매를 착즙해 즙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효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른 첨가제는 일절 없이 꾸지뽕 열매와 나무만 사용합니다. 한번 맛본 분들이 해마다 꾸준히 찾고 구매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농장에 들어서면 멀리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커다란 하우스는 그의 사무실이다. 노래방 기계부터 파라솔 벤치, 흔들의자, 사계절 다른 꽃을 볼 수 있는 화단 등 일과 휴식을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강 대표는 농사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변치 않는 사랑을 주는 것이라 답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처럼 그도 오래도록 나무들과 건강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며.

“귀농 10년차가 되니 이제는 나무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물이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배수로도 한번 확인해주고, 더운 날이면 뜨거울까 들여다봐 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 그 마음을 아는지 나무도 잘 자라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제2의 은퇴 전까지 나무와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 1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하우스
- 2 수확한 꾸지뽕 열매와 즙



2

흥미진진공주 '기업이야기'에서는 공주시 향토기업 2세 경영인들과의 대담을 통해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영인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 향후계획 등을 알아본다. 공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미래를 그리는 2세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건축업 뼈대 지키는 기업 강구조물 산업 멤버원을 꿈꾸다

모든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뼈대'는 바로 철골구조물이다. 건축에서 철골구조물의 역할은 건물의 안정성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뼈대가 조금만 부실해도 그 건물은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 우성면에 자리한 ㈜정원엔지니어링은 철강구조물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제작하는 기업이자, '철강구조물 건축분야 공정'을 획득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전문건설업체다. 아버지와 함께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류시원(41) 차장은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입사해 약 20여 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용접부터 설비제작, 경영관리까지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원엔지니어링의 면모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 공주시 우성면 금계터길 122 ☎ 041-852-8552

류시원
㈜정원엔지니어링 차장



Q. ㈜정원엔지니어링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국내 철강 및 강구조 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정원엔지니어링은 약 26년의 업력을 보유한 철골구조물 전문건설업체다. 1992년 대전 오정동에서 '정원산업기계'로 시작해 1997년 충남 연기군으로 공장을 옮기고 현재의 ㈜정원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08년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현 부지인 공주시 우성면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 ㈜정원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한 '철강구조물 건축분야 기업'이다. 철골 가공의 공정별 제작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제조 공정에 최적화된 생산설비 자동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전TJB 건물을 비롯해 공주산성시장 주차타워, 고마 아트센터, 내년 7월에 완공되는 신관동 주차빌딩 건물 시공에 참여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호주 로이힐 광산 근로자 숙소 등 해외공사도 수행했다.

Q.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아버지는 직원들의 밥줄을 책임지는 기업의 대표이사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운영을 해오셨다. 어릴 적부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왔기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 고등학교를 대전 충남기계공고로 진학하면서 현장실습을 나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부터 입사해 지금껏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원엔지니어링은 지난 20여 년간 흘렸던 땀과 열정,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다.

Q. 기업의 3대 업종인 철강구조물·금속구조물·기계설비 공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창호, 표지판, 조형물 등 금속을 주원료로 제작되는 '금속구조물 공사업'을 기반으로 컨베이어벨트 등 설비 자동화를 위한 '기계설비 공사업', 강철을 주원료로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공사업' 등 사업 분야를 점차 확장해왔으며 현재는 철강구조물 공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철강구조물 공사업이란 강철을 주원료로 제작되는 건축물이나 다리, 타워, 공장 등의 구조물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철강구조물은 내구성이 강하며 고층구조에도 안정성과 견고함을 지닌 특징이 있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건축물과 시설물 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볼트로 철골을 조립하기 때문에 양생작업이 필요한 콘크리트나 다른 시공법에 비해 생산과 설치가 빠르고, 유지보수도 용이해 건축물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과 교통시설에도 활용된다.

Q. ㈜정원엔지니어링은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서도 강구조물 산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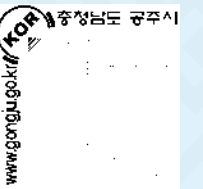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장의 생산능력을 인증해 부실공사, 불법하도급과 같은 건설 부조리를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약 1000개의 철강구조물업계 가운데 해당 인증을 받은 업체는 40여개밖에 안될 정도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 ㈜정원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을 취득하며 건설업 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도 관심을 두고 있다. 실례로 서대문구 청년숙소, 울릉도 독거노인 숙소, 호주 로이힐 광산 근로자 숙소 등에 친환경 건축 공법인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했다. 모듈러 시스템이란 블록형태의 유니트 구조체로 건축물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친환경 건축시스템 공법이다. 이는 모듈의 재사용, 자재 재활용, 폐기물 제로화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건설업의 다각화로 노동력 재창출 등 앞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더욱이 호주에서의 해외공사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강구조물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Q. 공주 차세대 분과 모임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공주 차세대 분과에는 현재 11명의 회원이 한 달에 한 번 각 회원사를 방문해 기업의 주력 사업 및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비슷한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가 본인이 겪어온 경험을 되살려 후배들에게 건네는 진심어린 조언들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주 차세대 분과 모임이 더욱 알려져 다양한 회원들과 교류하길 바란다.

Q.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몇 년 사이 대출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기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땀을 흘려온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기술력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글로벌 철강구조물 전문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



공주소식

의정소식

공주알림

'가장 긴 인절미 만들기' 한국기록 수립

국내에서 가장 긴 1624m 인절미 만들기 성공

10월 7일 오후 금강철교에서 개최된 인절미 축제에서 인절미의 고장 충남 공주시가 '단일 장소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가장 긴 인절미' 부문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을 수립했다.

수천명의 관람객이 지켜본 가운데 세운 공식 기록은 총 1624m로 기존 기록은 지난 2010년 김제지평선축제에서 만든 1233m이다.

한국기록원은 기록 도전 규정 준수 여부와 인절미 제작 과정, 길이 등을 측정된 뒤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서를 공주시에 전달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금강철교 위에 탁자 180여개를 배열한 뒤 그 위를 5차례 왕복하는 형태로 1624m 길이의 인절미를 만들었다.

인절미를 만드는데 투입된 찹쌀만 약 3톤, 참여 인원도 200명을 넘었다.

'1624m'는 공주 향토음식인 인절미의 유래년도인 1624년(조선 인조 2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절미 유래는 1624년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일주일 정도 공주에 머물렀을 당시 임시 성을 가진 백성이 콩고물에 무친 떡을 임금님께 진상한 떡으로 임금 인조가 맛이 좋아 떡 이름을 '임절미(任絶味)'라 이름 붙였으며 오늘날 인절미로 전해 내려 오게 됐다고 전한다.

문의 관광과(041-840-8110)



'고맛나루 쌀' 39톤 미국 수출길 올라

공주시 대표 쌀 브랜드인 '고맛나루 쌀'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출길에 오른다.

이번에 수출되는 고맛나루 쌀은 총 39톤으로, 전량 미국 뉴욕에 있는 미주 최대 한인마트(H-마트)로 들어간다.

이어 10월 초부터는 공주알밤 약 3톤씩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마트로 수출돼 교민은 물론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했다.

한국인 권일연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한인마트는 미국에 98개점, 캐나다에 18개점이 운영 중이다.

수출품 선적에 이어 공주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공주시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을 펼친바 있다.

문의 농식품유통과(041-840-8956)



석장리박물관 상설전시실 내년 1월까지 임시 휴관

야외 유적지와 특별전시실은 무료 개방

공주시는 석장리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연출 개선을 위해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상설전시실을 임시 휴관한다.

상설전시실 전시연출 개선은 2017년 새 단장 이후 6년이 지나 전시실이 노후화되고 최근 급속하게 변화되는 디지털 전시를 강화해 구석기에 대한 대중적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10월 중 사업에 착수해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콘텐츠를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이 기간 관람이 제한된다. 다만, 야외 유적지와 특별전시실은 해당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 석장리박물관은 지난 5월에는 방문자센터를 준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구석기공원 조성도 현재 추진 중이다.

문의 문화재과(041-840-8927)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공주시가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배상 책임보험'을 지원한다.

보장내용은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공주시로 전입 시는 자동 가입, 전출 시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02-2038-0828 → ARS ①번)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보험금은 심사기관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문의 경로장애인과(041-840-805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공주시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향상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공주시가 본인 부담금 1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상해 사망 3천만원, 상해 후유장애 3천만원, 상해 입원일당 1일 2만원, 상해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상해 화상 진단비 건당 20만원, 상해 의료지원비 건당 50~500만원을 보장해준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관련 시설 132개소 2704명으로, 보장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며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 발생 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년째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보험 가입 보상 건수 63건, 2천만원이 지급됐다.

문의 복지정책과(041-840-8123)

공주소식

의정소식

공주알림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전국 1위'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 8.5건, 전국 기초·광역의회 중 가장 높아

공주시의회가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연평균 8.5건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22. 7. 1. ~ 23. 6. 30.)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02건으로 1인당 8.5건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전국 기초 의원들의 전체 평균인 2.7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며 광역의회 평균인 2.87건보다도 더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주시의회는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 비용(의원 당 발의 건수를 의정비로 나눈 수치)이 441만원으로 조례 1건 발의 시 지출한 의정비가 전국 모든 의회 중 가장 낮아 '가장 뛰어나고 경제적인 성과를 낸 기초의회'로 평가받았다.

이는 지난 1년간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고민과 연구가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6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어 의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구병 의장은 "지난 1년간 의회 입법 활동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의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설명회' 개최

제248회 임시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토론

공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8회 임시회(10. 23. ~ 10. 31.)를 앞두고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원 자치법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원 자치법규 설명회는 공주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자치법규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입법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제247회 임시회 자치법규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바이 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윤구병 의장

임달희 부의장

공주시의회 윤구병 의장과 임달희 부의장이 최원철 공주시장의 지목을 받아 '바이 바이(Bye Bye)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에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윤구병 의장과 임달희 부의장은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하기, 장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윤 의장은 류동훈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임 부의장은 공주시의회 김권한 산업건설위원장과 이범수 의원을 지목했다.

윤구병 의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은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며 "오늘의 챌린지도 공공기관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모두의 참여를 부르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달희 부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한 큰 숙제"라며 "실생활 속에서 다회용품 사용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각종 회의 시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예술공간 11월 전시작 '고마학습나루 평정리&운궁리 천아트'

정안면 평정리·운궁리 어르신 작품 전시회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에서 11월 2일(목)부터 11월 29일(수)까지 '고마학습나루 평정리&운궁리 천아트'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평정리&운궁리 천아트는 정안면 평정리와 운궁리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틈틈이 익혀 제작한 천아트 작품 16점으로 이전의 천아트 작품들처럼 꽃을 소재로 한 것은 동일하지만, 아크릴 물감이 아닌 천아트용 특수 물감을 이용해 광목천 위에 제작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크릴 물감도 세탁 등에 잘 지워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천아트용 특수 물감은 마른 뒤에도 거의 갈라짐이 없다는 장점이 더해져 쿠션이나 가방 등 제작 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윤구병 의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익힌 천아트가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생활에도 활용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며

"앞으로도 배워서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 걸릴 천아트 작품은 쿠션이 7점, 액자가 9점으로 총 16점이다.



공주소식

의정소식

공주알림

지방 의회 간 문화·우호 교류 방문

이천시의회 쌀문화축제 방문

공주시의회는 지난 10일 18일 이천시의회를 찾아 함께 쌀문화 축제 현장을 방문했다.

윤구병 의장을 비롯해 6명의 의원과 8명의 수행직원이 함께한 이번 쌀문화축제 방문은 단순한 지역문화 축제 방문이 아니다. 지난 8월 구호물품 전달 방문에 이어 9월 2023 대백제전 축하 방문으로 두 차례 공주시의회를 찾았던 이천시의회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가진다.

윤구병 의장은 “자매결연 도시 이천시의 대축제 ‘쌀문화축제’에 초대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올해처럼 어려울 때 돕고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며 교류와 협력을 더욱 두텁게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우호교류 방문

공주시의회는 10월 20일 당진시의회를 방문했다. 상호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우호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방문은 윤구병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과 11명의 수행직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협약식 체결 외에도 의원과 직원이 함께하는 친선 체육경기(축구, 족구)도 같이 진행됐다.



기고문



인지기능 개선 활동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 대비

임달희 | 공주시의회 부의장

우리 주변에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시민들과 사적 대화 자리에서도 치매 가족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어 형제간 우애까지 걱정하는 사례를 종종 마주한다. 며칠 전에 만난 한 지인은 배우자가 2년 전에 인지기능저하 증세가 시작된 후 올해 60세의 나이로 치매 판정을 받게돼 간호를 위해 요양보호사 공부와 인지기능 개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에 많게는 4~5차례씩 받는 지방경찰 청발 실종 안내 문자의 실종자 대다수는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로 배회 중에 길을 잃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연로한 부모님을 두고 있는 가정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노화로 인한 뇌기능의 퇴화를 완벽하게 막을 대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늦추고 예방하는 방법은 있다. 우선 치매가 걸리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인지기능저하 증세가 처음 나타난 후 치매로 진행되기까지는 보통 10~1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치매 판정을 받고 난 후에야 기관을 알아보고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원가 작은 이상이 왔을 때(가능하면 그 이전부터)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찾고 식재료의 영양소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처럼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을 미리 시작하는 일이 모두의 불행을 막는 첫걸음인 것이다. 또한 치매 발병이 70대 이상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잠재적 인지기능저하를 막기 위한 노력(운동, 사회봉사, 취미 활동, 독서 등)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보다 ‘언제 시작하느냐’인 것이다.

일단 치매 발병 후에는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발병 사실을 숨기지 말고, 모두의 관심 속에서 당당히 치료 및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치매’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이나 사회적 편견이 두려워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명칭 변경 논의를 거쳐 치매의 새로운 명칭으로 ‘인지저하증’, ‘인지병’ 중에서 연내 최종 택일해 내년부터 사용한다고 하니 치매 가족 돌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가족의 관심과 배려가 선행된 뒤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선정해 나와 내 가족이 빠르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면 더 효과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마 전에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약 950만에 달해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고용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올바른 인지기능 개선 훈련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시점인데도 치매 환자를 계속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 또한 마치 싫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지기능 개선 활동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공주소식

의정소식

공주알림

2023 ~ 2024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 가능**
- **접종백신** 현재 번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 **접종 권고대상**
- 65세 이상, 12 ~ 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그 외 12세이상 전국민 접종 가능
- **접종간격** 년 1회 절기 접종
※ 단, 이전 코로나19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접종 가능
※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차수 상관없음, 코로나19 감염력 상관없음
- **접종일정**
- 2023. 10. 19.(목) ~ 2024. 3. 31.(일)
65세 이상, 12 ~ 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2023. 11. 01.(수) ~ 2024. 3. 31.(일)
12세 이상 희망자
- **접종장소** 지정의료기관 33개소
※ 보건소는 코로나19 미접종
- **문의** 공주시보건소(041-840-3681~2)

2023 ~ 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사전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화이자 XBB.1.5	모더나 XBB.1.5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화이자 XBB.1.5	모더나 XBB.1.5
서울신경외과의원	041-841-9997	V	V	순풍외과의원	041-857-8600	V	V
유구성심의원	041-841-6315	V	V	안내과의원	041-856-6655	V	V
제일의원	041-841-0852	V		우리안과의원	041-855-9797	V	V
중앙의원	041-841-4631	V	V	장내과의원	041-853-8575	V	
행림의원	041-841-8275	V		정다운신경과의원	041-853-9905	V	V
굿모닝의원	041-857-5060	V		고은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041-853-8275	V	
현대의원	041-857-2101	V		공주경희한방병원	041-852-0100	V	V
대성새마을금고의원	041-858-6088		V	고려가정의학과의원	041-881-2222	V	V
김내과의원	041-855-7336	V	V	미앤맘산부인과의원	041-840-1000	V	V
베이비인후과의원	041-856-0352	V	V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	041-840-1004	V	V
오내과의원	041-854-9900	V	V	연세탑내과의원	041-400-8275	V	V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041-962-1111	V		을지가정의학과의원	041-881-8875	V	V
공주서울내과의원	041-853-7582	V	V	중앙유내과의원	041-852-8806	V	V
서울비뇨기과의원	041-854-7582	V	V	튼튼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041-858-7582	V	V
성모소아청소년과의원	041-852-7233	V	V	필내과의원	041-855-0830	V	V
속튼튼내과의원	041-854-8883	V	V	현대요양병원	041-850-7500	V	V
손경선내과의원	041-858-2345	V	V				

- 2023. 10. 19.(목) ~ : 65세 이상, 12 ~ 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2023. 11. 01.(수) ~ : 12세 이상 희망자(보건소는 **코로나19 미접종**)

2023 ~ 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6개월 ~ 13세 이하, 임신부, 50세 이상 미접종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하세요!

구분	접종대상		접종장소	접종기간	
	어린이	생후 6개월 ~ 13세 이하 (2010. 1. 1. ~ 2023. 8. 31. 출생자)		2회 접종 (생애 첫 접종)	2023. 9. 20.(수) ~ 2024. 4. 30.(화)
국가지원	주소지 제한 없음	임신부	위탁의료기관	1회 접종	2023. 10. 5.(목) ~ 2024. 4. 30.(화)
		어르신		65세 이상 (1958. 12. 31. 이전 출생자)	2023. 10. 5.(목) ~ 2024. 4. 30.(화)
		어른		50세 ~ 64세 (1959. 1. 1. ~ 1973. 12. 31.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1~3급), 국가유공자(본인)	2023. 10. 11.(수) ~ 2024. 4. 30.(화)
자치체지원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자	50세 ~ 64세 (1959. 1. 1. ~ 1973. 12. 31.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1~3급), 국가유공자(본인)	보건소(야외, 내소) 09:00 ~ 15:00 (점심시간 : 12 ~ 13시)	위탁의료기관	2023. 10. 18.(수) ~ 2023. 12. 31.(일)
				보건지(진료)소	2023. 10. 18.(수) ~ 2024. 4. 30.(화)
				보건지(진료)소	2023. 10. 18.(수) ~ 2023. 12. 31.(일)
				① 보건소(야외)접종 : 1주 집중접종 2023. 10. 25.(수) ~ 2023. 10. 31.(화) ② 보건소(내소)접종 : 2024. 4. 30.(화) ※ 보건소는 65세 이상 미접종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자체 일정에 따라 실시하오니, 사전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접종장소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2023 ~ 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50개원)

행정동	의료기관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50~64세, 취약계층	행정동	의료기관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50~64세, 취약계층	
유구읍	서울신경외과의원	X	O	X	O	산성동	정다운신경과의원	X	O	X	O	
	유구성심의원	X	O	X	O		정연채내과의원	X	O	X	O	
	제일의원	X	O	X	O		좋은내과의원	X	O	X	O	
	중앙의원	X	O	X	O		하나연합의원	X	O	X	O	
	행림의원	O	O	O	O		고은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O	O	X	O	
계룡면	굿모닝의원	O	O	O	O	금흥동	공주경희한방병원	O	O	O	O	
	현대의원	X	O	X	O		고려가정의학과의원	O	O	X	O	
정안면	대성새마을금고의원	X	O	X	O	신관동	순풍산부인과의원	X	X	X	O	
	김내과의원	X	O	X	O		미앤맘산부인과의원	O	O	O	O	
중동	베이비인후과의원	X	O	X	O		연세탑내과의원	X	O	X	O	
	오내과의원	X	O	X	O		서울산부인과의원	X	X	O	X	
	허외과의원	X	O	X	X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	O	O	X	O	
웅진동	공주의료원	O	O	O	O		요양병원	우리비이비인후과의원	O	O	O	O
	옥룡동	성보의원	X	O	X			O	을지가정의학과의원	O	O	X
산성동	공주서울내과의원	X	O	X	O			중앙유내과의원	O	O	X	O
	다나안산부인과의원	X	O	O	O			튼튼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O	O	X	O
	서울비뇨기과의원	X	O	X	O			필내과의원	X	O	X	O
	서울튼튼신경외과의원	X	O	X	O	공주에덴요양병원, 공주푸르메요양병원, 라온요양병원, 세종프라임요양병원, 공주참요양병원, 공주요양병원, 주은라파스요양병원, 현대요양병원(8개소)						
	성모소아청소년과의원	O	O	O	O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자 중 50 ~ 64세, 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1~3급), 국가유공자(본인) 의료기관 접종시행						
	속튼튼내과의원	X	O	X	O							
	손경선내과의원	X	O	X	O							
	순풍외과의원	X	O	X	O							
	안내과의원	X	O	X	O							
	우리안과의원	X	O	X	O							
장내과의원	X	O	X	O								

☎ 문의 공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041-840-3681~2)

구인·구직난 해소 위한 공주시 취·창업박람회 개최

2023 공주시 취·창업박람회는 취·창업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존, 컨설팅존, 창업·홍보존,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참여대상**
- 진로 탐색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 **행사규모**
- 관내 우수기업 40여개(직·간접 포함)
- **일시**
- 2023. 11. 14.(화) 14:00 ~ 17:00
- **장소**
- 공주대학교 문화체육관(주차장 무료)

구분	주요 내용
채용존	공주시 우수기업 채용관 - 현장 1:1 면접
컨설팅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입사지원 컨설팅 - 취업컨설팅(이력서, 자기소개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 기업 및 청년 지원 정책
창업·홍보존	창업 및 기관 홍보 - 창업 멘토링 - 4차 산업 관련 미래 일자리 체험 - 공공기관 홍보
체험존 (부대행사)	똑똑한 부대행사 - 무료 - 퍼스널칼라 진단 - 면접 메이크업 - 지문 인·적성 검사 - 이력서 사진 촬영 - 건강 지킴 및 VR 체험 등

문의 공주시일자리센터(041-840-8304, 8089)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선정대리인이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지원대상 불복절차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법인제외 : 법인·단체는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신청 및 지정 절차

-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문의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2)

공주시여성회관 무료 대관 안내

• 운영기간

- 평일(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휴일 제외)
- 월~금 09:00 ~ 18:00
- 화·수·목 13:00 ~ 18:00(오전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 대관장소 2층 소모임실, 3층 대강당

• **대관방법** 전화, 네이버예약을 통한 접수
(네이버에서 공주시 여성회관 예약 신청하기)

• 대상 공주시민 누구나

문의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041-852-4778)



시민명예기자가 전하는 공주의 현장

2023년 공주문화예술촌 '입주예술가 릴레이전' 보러오세요

공주문화예술촌(봉황로 134)에서 '2023년 입주예술가 릴레이전'이 열려 여러 작가들과 소통을 하며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입주예술가 릴레이전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박춘화(풍경화), 25일~11월 5일 장동욱(회화, 설치미술), 11월 8일~19일 김정우(추상화), 11월 22일~12월 3일 임규보(페인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공주문화예술촌은 지난 2016년 공주소방서가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공간으로 변모, 각 분야의 지역 작가들을 선정해 작업공간을 마련해주고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월요일 휴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공주 원도심내 갤러리 쉬갈(봉황로 84), 갤러리 수리치(호심1길 7), 이미정갤러리(감영길 12-1 2층), 민갤러리(웅진로 154-4 2층)와 대통길 작은미술관(대통1길 50)도 함께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길은정(사곡면)



자원봉사자들 노고에 공주시가 감사한 마음 전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섯글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2023 대백제전에서는 종합안내, 환경정화, 물품보관소 등 13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한 축제 진행을 도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농작물, 농·축산 시설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자원봉사자들은 수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를 했었다.

공주의 대표 얼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환한 미소를 머금고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아낌없는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현재 공주시에 150여 단체 4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념일 전·후 2주간을 '자원봉사자 주간'으로 정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있다.

윤봉중(신관동)



안전·행복·여유가 있었던 2023 대백제전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면 금방 발길이 안 떨어진다. 2023 대백제전의 미르섬이 그러하다. 추억 많은 코스모스, 해바라기, 황홀경인 야경 등 눈에 담을 것이 많아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여행자가 태반이다.

등 눈에 담을 것이 많아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여행자가 태반이다. 문제는 썬더다. 치치고 힘들 때 앓을 만한 곳이 없으면 어른신과 아이가 장시간 머물 수가 없다. 대백제전은 쉬어가기 좋은 휴게공간이 적절히 배치되어 칭찬이 자자하다.

썬더는 '미르섬의 거대한 진묘수 근처, 사랑나무 아래의 노란 파라솔, 출구인 구름다리의 앞, 그리고 강을 낀 배 다리 옆과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잔디밭의 감성 텐트촌' 등이다.

이밖에 미디어아트관 내부에도 등을 기대어 관람할 수 있는 영상관이 따로 있으며 성안마을 공복루 옆 하얀 의자에서도 편안히 백제의 달을 감상할 수 있다. 볼거리뿐만 아니라 휴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단장한 대백제전은 '안전, 행복, 여유'라는 수석이 휘둘러왔던 아름다운 축제로 기억되고 있다.

정영수(신관동)



2023년 대백제전 공주시 '무령왕의 길' 재현 최초 시도

공주시가 2023 대백제전을 통해 무령왕 서거 1500주년을 맞아 야심 차게 준비한 '무령왕의 길'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규 프로그램인 '무령왕의 길'은 공산성 공복루에서 연문광장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행렬로 재현 인원 80명이 참여했다.

무령왕의 탄생과 업적, 백제 군신들의 조문, 주변 각국 조문사절단의 노제공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성왕 즉위식 등이 이색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 등 공주의 대표적인 역사 자원에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여기에 무령왕의 장례 과정을 볼 수 있는 특별전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가 오는 12월 10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열려 무령왕 묘지석과 목관을 비롯한 백제 왕실의 장례문화와 관련한 유물 126건, 697점을 만나볼 수 있다.

구자희(금학동)



삶의 교훈을 전하는 공주의 옛이야기

옛이야기에는 이야기를 만들고 전해온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던 말이 숨어 있다. 옛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때로는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해준다. 공주 곳곳에서 전해지는 교훈이 담긴 옛이야기를 소개한다.

스승의 말을 어겼던 장수의 '열두 무덤 전설'

사곡면 계실리에는 열두 무덤이라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공주학아카이브에서 발행한 '사곡면지'에 실린 이야기다. 옛날 사곡면에는 김덕남이란 장수가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 실력이 출중했고 특히 말타기와 활쏘기, 칼싸움을 잘했다. 성인이 되자 그는 계룡산에 무예 실력이 뛰어난 고수가 머문다는 소문을 듣고 집을 나섰다. 며칠이나 산을 헤맸을까. 마침내 무인을 만난 김덕남은 스승에게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줄 것을 청했다. 그 후로 피눈물 나는 훈련이 시작됐고 그의 무예실력은 점차 성장해 무불 통달(無不通達)의 경지에 도달했다. 모든 수련을 마치기 전날 스승은 "이제 정신을 다루는 고비만 남았다"고 이르며 "억지로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어느 날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큰 난리가 생겼고 그는 고향에 남은 부모와 백성을 위해 오랑캐와 맞서 싸웠다. 하루는 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수의 앞에 어여쁜 여인이 지나가자 자신도 모르게 억지로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자 바로 어디선가 오랑캐들이 나타나 그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는 말을 타고 급히 몸을 피할 장소를 찾아가다 절벽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힘차게 말을 채찍질하며 바위를 뛰어넘으려 했으나 그만 말과 함께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열두 무덤은 그가 낙마해 죽을 때 몸이 열한 도막으로 끊어졌다 해서 그 수효대로 묘를 쓰고, 맨 앞에는 장수 김덕남의 묘를 써 합쳐 열두 무덤이라 전한다. 현재 마을에는 김덕남의 묘와 12개의 말무덤을 볼 수 있다.



김덕남의 묘와 12개의 말무덤

끝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푸세울 용무덤 전설'

이인면 초봉리 푸세울 마을은 예로부터 부농(富農)이 많고 야채(푸세)가 푸짐해 '푸세울'이라 이름 지어졌다. 이곳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한쪽에는 '푸세울 용총'이라 불리는 무덤이 있다. '공주의 맥'에 실린 이야기다. 옛날 옛적 마을에는 용이 되기 위해 속세와 단절한 채 수양하는 이무기가 살았다. 하루는 이무기가 굴 밖에 나왔다가 목욕을 하는 처녀의 몸을 휘감은 독사를 보게 됐다. 그는 독사에게서 처녀를 구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굴속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꿈에 옥황상제가 나타나 "인간과 접촉을 했으니 지금부터 100년을 더 수양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날로부터 이무기는 다시는 사람 목소리가 나는 곳에 얼씬도 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다. 이윽고 100년이 흘렀을 무렵 청룡이 나타나 "머칠 뒤 하늘에서 하얀 물줄기가 내려올 것이니 그 물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오면 용이 될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사흘이 지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무기의 앞으로 하얀 빗줄기가 내려왔다. 그때였다. 해산을 앞둔 아낙네가 하늘을 보니 물줄기를 따라 뱀이 꿈틀거리며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낙네는 무심코 "뱀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외쳤고 외침과 동시에 물줄기가 끊어지며 이무기는 땅으로 곤두박질해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를 떨어진 자리에 묻어주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쌓이더니 큰 무덤으로 변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무덤 주변에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자라기 시작해 마을의 정자나무로 자리 잡았다.



용무덤 전설이 내려오는 푸세울 마을 전경

이달의 공연

☎ 041-852-0858

<p>지역예술가 초청리사이드 어머니를 위한 꽃의 알츠</p> <p>11월 4일(토) 17시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p>	<p>뮤지컬 테레즈 라캥</p> <p>11월 9일(목)~11일(토) 평일 19시 30분, 주말 14시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p>	<p>지역예술가 초청리사이드 윤영아-입춤</p> <p>11월 11일(토) 17시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p>	<p>배리어프리 공연 보이는 소리, 만지는 소리</p> <p>11월 17일(금)10시 30분, 18일(토) 14시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p>	<p>60분간의 세계여행</p> <p>11월 22일(수) 11시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p>
----------------------------------------------------------------------------	----------------------------------------------------------------------------------	----------------------------------------------------------------------	-----------------------------------------------------------------------------------------	---------------------------------------------------------

이달의 전시

☎ 041-854-5345

<p>한예진 개인전 현대 천화분청의 자유를 느끼며</p> <p>10월 31일(화) ~ 11월 6일(월) 이미정갤러리</p>	<p>장지연 개인전 길상전</p> <p>11월 7일(화) ~ 11월 13일(월) 이미정갤러리</p>	<p>아트 프리 이십삼</p> <p>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이미정갤러리</p>	<p>예성그림 특별전</p> <p>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이미정갤러리</p>
------------------------------------------------------------------------------	-----------------------------------------------------------------	------------------------------------------------------------	-----------------------------------------------------------

고향사랑기부제 9월 기부금 현황

2023년 1월~9월까지 총액
203,238,400원

문의 공주시 미래전략실
(041-840-2051)

1,292명 45,405,100원

김성복, 강성목, 이동화, 홍창수, 최해열, 이복일, 강도목, 박경숙, 김윤목, 임재관, 윤관원, 윤홍익, 이병수, 박범수, 최진, 김덕웅 박나영, 박철, 김태중, 박홍준, 서도원, 양윤석, 신정아, 김재범, 이희수, 민경대, 최규보, 강화자, 김좌용, 정근철

※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모두 실어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모금된 성금은 지역복지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활성화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 창구

기부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16.5% 공제 + 기부금의 30% 담례품 제공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9월 기부금 현황

2023년 1월~9월까지 총액
33,633,400원

2023년 9월 기부금 총액
3,217,060 원
문의 공주시 평생교육과
(041-840-8374)

일반

14건 2,530,000원

지희순, 김경미, 이재권, 이광희, 이태훈, 이용복, 최창석, 김정섭, 이찬, 자원스님, 김희경, 서견석, 백옥희

공무원

62건 687,060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9월 기부금 현황

2023년 1월~9월까지 총액
1,228,549,736원

2023년 9월 기부금 총액
46,942,100 원
문의 공주시 복지정책과
(041-840-8126)

현금

8건 12,350,000원

현금 : 금학동주민자치회, 대전개민택시 공주항우회, 장순, 집밖똥선생, 안경찬, 이명하, 지디앤디(주), 김창복

현물 : 충남건축사협회 공주지역회, (주)테크로스 환경서비스, 공주대여교수회, 국립공주병원, 안여인,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부산 신자유미래산악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합동새마을금고, 마녀상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 원마트,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합동새마을금고, 부자떡집, 하나님의 교회, 한국수자원공사 물사랑나눔단, 농업회사법인 (주)티엠피, 정안 프린세스골프클럽, 애터미(주), 씨앤앤코스메틱, 이성곤

현물

20건 34,592,100원 상당

※ 모금된 성금·물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됩니다.

묵죽화의 대가

이정

李霆

1554~1626



이정 묵죽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이정은 조선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중국 양식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한 묵죽화(물과 먹으로만 그린 대나무 그림)의 대가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섭(仲燮) 호는 탄은(灘隱).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증손이며 익주군 이지(李枝)의 아들이다. 석양정(종친에게 주는 작호)에 봉해졌고 만년에 종친으로서 가장 높은 품계를 받아 석양군(石陽君)으로 승격됐다.

성품은 온화하고 단아하면서도 심지가 곧아 강직했다. 일찍부터 시·서·화(詩·書·畵)에 재능을 보이며 삼절(三絶)로 명성이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묵죽화에 뛰어나 30대 중반에는 이미 경지에 올랐다. 당시 왕인 선조에게 그림을 선보일 정도였으며 선조는 이정이 하나의 족자를 완성할 때마다 많은 물품을 하사했다고 한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봉당정치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당시 문인 사대부들은 시·서·화를 통해 심신을 수양했다. 매·난·국·죽 사군자는 문인사대부의 마음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소재였고 이정은 특히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즐겨 그리며 삶을 성찰하고자 했다.

이정은 공주의 만사음(현재 탄천면)에 별서정원을 만들고 인생을 관조하며 은거했다. 또한 이곳에 월선정(月先亭)을 지었는데, 뒤로는 계룡산이 우뚝 솟아있고 옆으로는 곡화천이 흐르며 앞으로는 너른 들이 펼쳐져 있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월선정은 당대 문인들의 교류 장소였으며 이정의 작품세계가 견고하고 풍부해지는 바탕이 되는 곳이었다.

43세 무렵에는 임진왜란 전투에 참여했다 왜적의 칼에 오른팔을 크게 다쳤으나 월선정에 칩거하며 그림에 더 매진했다. 월선정 근처에는 이정이 십매(十梅)라 이름 붙인 매화나무 10그루와 뾰뾰한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사유하고 대나무를 관찰하며 그림에 몰두하여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이정은 조선시대 중기 문예의 지향과 역량이 집대성된 시서화첩 삼청첩(三淸帖)을 완성한다. 삼청첩은 대나무 그림 12폭, 매화 그림 4폭, 난 그림 4폭 총 20폭으로 이뤄졌으며 흑색 비단 바탕에 금니(金泥)로 그려졌다. 12폭의 대나무 그림은 순죽(筍竹), 통죽(筒竹), 고죽(枯竹), 우죽(雨竹), 풍죽(風竹), 노죽(露竹) 등 대나무의 생태와 기후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으며 대나무의 강인한 특성이 잘 표현돼 있다.

대나무는 국가적·개인적으로 혹독한 시련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이정을 비롯한 조선 문인들 자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위기와 혼란의 시대 흐름 속에서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대나무로 대변해 나타낸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정의 굳은 절개가 표현된 묵죽화를 만날 수 있다. 신사임당 초상이 있는 오만원권 지폐의 뒷면에는 이정의 '풍죽도(風竹圖)'가 삽입돼 있다. 이는 거친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거센 바람에 당당히 맞서며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대나무를 그린 것으로 묵죽화 중에서도 절정의 기량과 최상의 품격이 돋보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묵죽화로 평가받는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옥룡동 복지봉사단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한다. 이는 대가 없이 자발적인 의지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공주에는 자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시간을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외로운 이웃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사회를 밝혀가는 옥룡동 복지봉사단을 만났다.

공주시 최초 순수 재능기부 봉사단

옥룡동 복지봉사단은 2012년에 결성된 공주시 최초 순수 재능기부 봉사단이다. 올해로 11년째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임종명(76) 단장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 좀 해보자'는 지극히 단순한 동기가 봉사의 시작이 됐다고 말한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이면 28명의 봉사자들은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나선다. 대상자는 주로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병으로 거동이 힘들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다. 임 단장은 "집을 수리할 때 재료값이 많이 들지 않지만 전문가를 부르는 출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게 현실"이라며 "대상자가 정해지면 사전답사를 통해 집안 곳곳에 수리할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말했다. 봉사자들은 쓰레기 정리와 곰팡이 제거, 집안 정돈 등 집 청소부터 전구 교체, 화장실 타일 시공, 단열재 보강 시공 등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거생활의 불편을 줄여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린다. 또한 옥룡동 복지봉사단에는 전기기술자부터 보일러 수리, 전문 도배, 목수 등 각 분야의 명장들이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

봉사하며 느끼는 행복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지난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심했던 옥룡동 주민들을 위해 열흘간 수해복구에 동참하기도 했다. 단원들은 매일 전국에서 모인 250여 명의 봉사자들과 집 안에 찬 물과 토사 제거, 가구 및 물건 정리, 환경 정비 등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다. 피약별 날씨에 봉사 하는 내내 쉴 새 없이 땀이 흘러 내리고 몸은 지쳐가지만, 수리가 끝난 후 활짝 웃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 고생도 더위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는 것이 봉사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들은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봉사하며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이 하루하루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 꼽았다. 또한 옥룡동 복지봉사단의 아름다운 선행이 알려지면서 유구읍과 우성면에도 비슷한 봉사단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임종명 단장은 "일회성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옥룡동 복지봉사단과 같은 봉사단체가 많아져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좋은 일은 좋은 일 자체로만 끝나지 않는다. 좋은 일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계속 퍼져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옥룡동 복지봉사단이 보여주는 사랑의 빛이 더 밝게 빛나기를 기대한다.



옥룡동 수해복구작업 봉사

공주토박이가
★★★★☆
극찬하는
오리주물럭 맛집

상원골오리
서비스를 지켜온
한결같은 맛과

20년 전 오리고기 효능이 알려지면서 공주에도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 했다. 당시 오리는 '귀한 보양식'으로 여겨졌고 차를 타고 도심 외곽으로 나가야지만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이를 아쉬워한 상원골오리 김윤이 대표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도 오리고기를 맛볼 수 있도록 중동에 오리전문점을 차리게 됐다.

올해로 20년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원골 오리는 지금껏 광고나 협찬을 일절 받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 오랜 사랑을 받아온 진정한 맛집이다. '중동 최초 오리집'이라는 명성답게 10개 남짓한 테이블은 식사 시간만 되면 항상 손님들로 만석을 이룬다.

오리로스과 주물럭 중 오리주물럭은 상원골오리의 대표메뉴. 오랜 세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특제 고추장 양념의 주물럭은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고기를 다 먹고 남은 양념에 고소한 들기름과 송송 썬 김장김치, 남은 밀반찬을 한 데 넣어 볶아주는 철판볶음밥은 오리주물럭 코스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다.

상추, 깻잎뿐만 아니라 밀반찬으로 제공되는 호박, 김치, 각종 나물반찬, 고춧가루, 들기름과 같은 양념 대부분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또한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고구마줄기, 가을에는 톳, 겨울에는 토란국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밀반찬 구성을 달리하면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겼다.

결혼식 참석을 위해 공주에 왔다가 맛본 주물럭 맛을 잊지 못해 8년째 단골이 됐다는 김승원 씨는 '한결같은 맛과 넉넉한 인심'을 상원골오리를 계속 찾게 만드는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김 대표는 가게를 찾는 손님 한분 한분께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준비된 양만 조리하며 재료가 소진되면 과감히 가게 문을 닫는다.

푸근하고 넉넉한 사장님의 인심으로 만들어진 건강한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상원골오리를 방문해보면 어떨까.

오리주물럭 코스의 화룡점정!
철판볶음밥 드시러오세요!



| 상원골오리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먹자1길 16
전화 041-853-4521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 ~ 오후 9시
※ 매주 일요일 휴무, 방문 전 예약 필수
대표메뉴 오리주물럭, 오리로스

공주시의 맛집 수기를 기다립니다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공주시 맛집에 대해 들려주세요. 보내주신 글은 편집을 통해 '이웃이 소개하는 로컬맛집' 코너에 소개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boowoon2015@daum.net
보내실 내용
① 맛집 소개 글과 사진
② 신청자 이름 및 전화번호

다른 그림 찾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림에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 O 표시를 하여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10분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뿐 곳

사진으로 다시 만나는 2023 대백제전 지난 10월 9일, 17일간 금강신관공원과 미르섬, 공산성 일대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이 막을 내렸다.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라는 주제로 300여만 명이 찾은 이번 축제는 과거 백제와 교류했던 해외 8개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백제문화에 대해 알리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관내 15개 봉사단체에서 종합안내와 의료보건, 미아보호소, 물품보관소, 환경정화 등 총 13개 분야에 배치된 총 6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왔다.

10월호 정답



10월호 당첨자

김미연 (공주시 신관동)	이누리 (구미시 상모동)	최연실 (대전시 동구)
김성현 (의왕시 오전동)	이마린 (공주시 월송동)	최연이 (군산시 조촌동)
김수옥 (세종시 아름동)	전현호 (공주시 신관동)	
박가은 (수원시 권선구)	최세진 (공주시 신관동)	

독자편지

테마산책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공주편을 감동깊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공주에 갈 때마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공 자전거 백제쌍쌍까지 운영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조만간 꼭 공주를 방문해 백제 쌍쌍을 타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겠습니다. 다음호는 벌써 가을의 끝자락 11월호이네요. 늦가을의 대명사 들국화, 억새풀이 아름답게 피는 곳도 소개해 주세요~^^ 최용범 (경기도 남양주시)

지난달 금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고향 공주를 방문해 대백제전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에 흠뻑 빠져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공산성을 배경으로 미르섬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자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역시 공주는 역사와 문화도시라는 것을 느끼면서 명실 상부한 세계 대축제로 거듭나는 대백제전의 위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공주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으면서 자랑스러운 공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동선 (대전시 둔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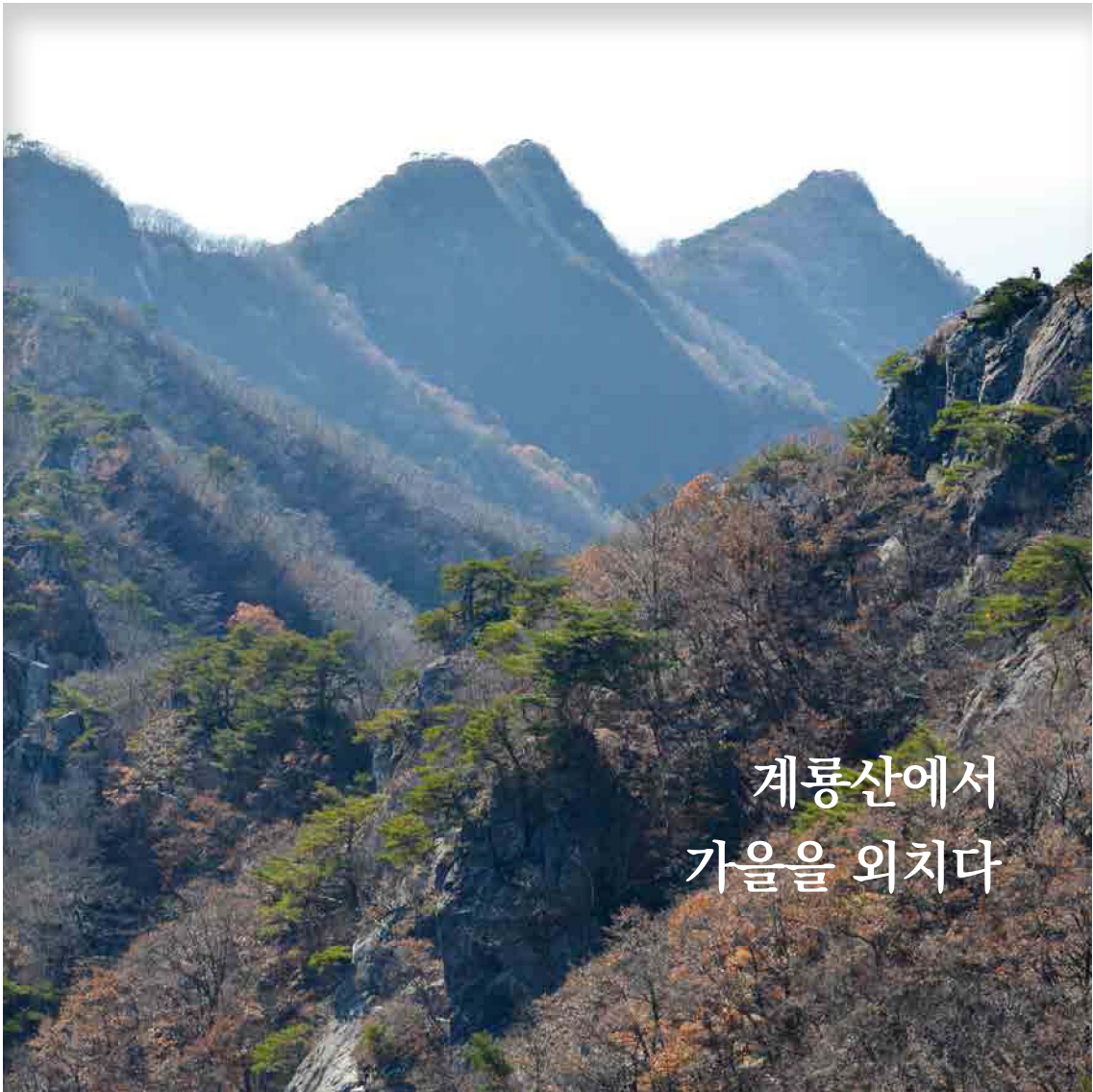
독자 편지

흥미진진 공주를 읽고 느낀 소감,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2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그림 찾기

다른 부분을 찾은 사진과 함께 이름, 주소(읍면동), 휴대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분께 모바일 음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11월 8일(수)까지
보내실곳 (이메일) boowoon2015@naver.com
(우편)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194, 2층
문의 070-5030-3039



계룡산에서
가을을 외치다



❤ 102,453 likes

#관음봉 #연청봉 #등산스타그램 #공주시 #가을 #가볼만한곳 #계룡산 #단풍맛집